

목포, 문학 유토피아를 꿈꾸다

9월 15일부터 사흘간 북교동 일원서 국내 유일 문학박람회 출판 오디션·선상 북콘서트·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행사

국내 유일 문학을 주제로 한 목포문학박람회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년 만에 찾아온다. 문학박람회는 한국 근대문학 선구자를 대거 배출한 목포문학의 태생지인 북교동(차범석길) 일원에서 9월 15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박람회 주제는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신진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청년 신진작가 출판 오디션이 주제관에서 선보인다. 대형서점인 아크넷북과 함께 하는 출판 오디션은 다음 달 3일까지 신청받는다.

박람회 기간인 15일 본선을 통과하면 출판계약 및 유통까지 지원한다. 8명의 국내 유명 청년 작가가 목포를 배경으로 창작한 앤솔리지(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여러 작가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 '소설 목포'도 출판한다. '소설 목포'의 창작 과정과 작품에 대해 작가와 함께 선상에서 대화하는 시간인 '선상북콘서트' 및 작가와 함께 떠나는 '소설 목포 문학 투어'도 운영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100여명의 웹툰,

만화 작가들의 작품 큐레이션 전시인 웹툰존,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로 나갈 한국문학특별전, 목포문학상 수상작 전시, 목포 출신 김지하 작가 특별전 등도 만날 수 있다. 전국 이색 독립서점 30개가 참여하는 특별한 도서 전시와 판매, 서점지기의 문학토크 콘서트와 출판사 마케팅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창업 강연도 열린다.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헌책방관, 제주문학관 등 전국유명문학관 초청 특별관, 작은도서관 등이 운영된다. 지붕 없는 문학관인 원도심 북교동 예술인골목길 일대에서는 목포 출신 작가들의 생가와 작품 배경지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골목길 문학관도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고흥 첫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감도.

고흥군 금산면에 40억 들여 '청소년 유스호스텔'

선벨리 그룹과 투자합의각서

고흥군 금산면에 고흥 첫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와 선벨리 그룹이 신군 회장이 고흥군청 팔영산출에서 금산면 어전리 일대에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고흥군은 사계절 온화한 기후 덕분에 프로 및 유스호스텔 스포츠 동계훈련지로 주목 받고 있으나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해 선수들의 훈련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된 금산 제일초등학교를 활용해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 될 금산 제일초등학교

학교 부지는 지역 최초 정규모야구장인 금산 거금야구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김일기념체육관에 인접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연소해변을 조망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체육, 문화, 여가활동 측면에서 건립이 최적지로 평가된다. 고흥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은 선벨리 그룹에서 40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5개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 수련활동장, 야외집회장 등의 교육시설과 휴게실, 취사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오는 9월 착공해 202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신안 자은주민바람발전소' 다음달 상업운전 시작

국내 첫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국내 첫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을 시작한 '신안 자은주민바람발전소'가 다음 달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카이에너지그룹은 신안군 자은면에 건립한 자은주민바람발전소 1단계 7기가 오는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1단계 29.4MW(4.2MW 7기) 풍력 발전시설을 건립해왔다. 앞서 2012년에는 계측기상탑을 설치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자은면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소위원회와 카이에너지그룹은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참여형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다.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에는 한국남동발전과 KB자산운용이 참여했으며, 설계·제작·설치·시험(EPC)은 동국S&C와 다본건설이 맡았다.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2차 단계(29.4MW 7기)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자은주민바람발전소 등이 주변지



국내 첫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 신안군 자은면 자은주민바람발전소(1단계 7기)가 다음 달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자은주민바람발전소 제공)

역 지원사업을 위해 낸 특별지원금으로 자은면에 다목적 회관을 새로 마련하기도 했다. 임철수 카이에너지그룹 회장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 의지에 힘입어 성공

적인 사례를 만들어 기쁘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 발맞추고 주민 소득을 늘리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kwangju.co.kr

광양국가산단, 105억원 들여 노후산단 재생

광양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 기반시설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지정됐고,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대상으로 5월

말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가 실시돼 지난 7월 사업계획서 제출에 이어 8월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5억원 등 사업비 총 105억원이 투입돼 태인동 국가산단 연관단지 내부도로 확장, 노후도로 및 보도블록 재포장, 화단 정비, 신규 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장성군 청소년 수당

10월부터 바우처로 지급

장성군이 민선 8기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수당을 오는 10월부터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성에 주소를 둔 청소년에게 연 1회씩 9~13세 7만원, 14~18세 1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문구점, 안경점, 교복점, 서점, 독서실, 예체능 분야 학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 관련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장성군은 청소년 생활 지원, 진로 개발, 문화·체육 활동 등에 필요한 가맹점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영암군, 달마지쌀 브랜드 육성 현장 점검

생산·가공·관리 현황 공유

영암군이 최근 지역 대표 농산물인 '달마지쌀' 생산·가공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호면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통합RPC)에서 열린 점검회의에는 달마지쌀 생산단지 대표와 영암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산·가공·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고품질 쌀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남 2대 쌀 주산지인 영암을 대표하며 전국 브랜드로 자리 잡아오던 달마지쌀은 최근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품질 순도저하, 이물발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암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남도의 공모사업 '벼 가공·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사업'을 가져왔다. 이 사업으로 5억2000만원을 투입해 색채 선별기 등의 오래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회의에서는 개보수 사업의 진행 상황 공유하고 전문인력 육성, 품종 및 브랜드 육성 방안 등 달마지쌀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점검회의 이후 회의 참석자들은 군서면 재배단지 찾아 현장점검을 이어갔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보성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 수상

보성문화원(원장 김현진·사진)이 전국 231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3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문화원상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문화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보성문화원이 수상한 종합경영부문 대상은 문화원 운영규모와 프로그램 운영수준, 지역문화발전기여 등에 대해 5개월간 거친 1차 서류심사, 2차 PT 발표 심사와 3차 현장심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2주간의 공개검증을 통해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전국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

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진 보성문화원장은 "지난 1967년 보성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2019년 10월 전국 최우수 문화원상 수상에 이어 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전국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원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